



VACHERON CONSTANTIN  
GENÈVE

탁월함의 세계

## 탁월함의 세계

개요

— 시계 애호가들

— 매뉴팩처

—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 컬렉션

### 탁월함의 세계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 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위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위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레이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릭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이 모토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메종은 수 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숙련된 기술의 전통과 혁신을 통해 시간에 대한 비전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미적, 예술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양성해왔다. 하늘 정복을 향한 도전에서부터 위대한 여행가들의 발자취를 따라나서는 모험에 이르기까지, 메종은 작은 시계의 다이얼 위 또는 메커니즘의 중심에서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한 모든 도전을 감수한다. 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다. 뛰어난 장인 정신을 향한 애정과 공유하는 가치에 대한 깊은 애착은 메종에 동기를 부여하고 매뉴팩처의 일상을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탁월함의 세계

개요

시계 애호가들

매뉴팩처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컬렉션

### 파인 워치메이킹에 매료된 수집가들

바쉐론 콘스탄틴은 파인 워치메이킹에 열정적인 수집가들과 꾸준히 늘어나는 입문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이들은 절제된 품격, 과시보다는 지식에 대한 갈망, 내재된 자연스러운 세련미에 친근감을 느낀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거나, 종종 시대에 한발 앞서 나가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메종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엄격한 기준을 따르면서도 모던한 삶에 어울리는 타임피스를 제작함으로써 이같이 안목 높은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탁월함의 세계

개요

— 시계 애호가들

— 매뉴팩처

—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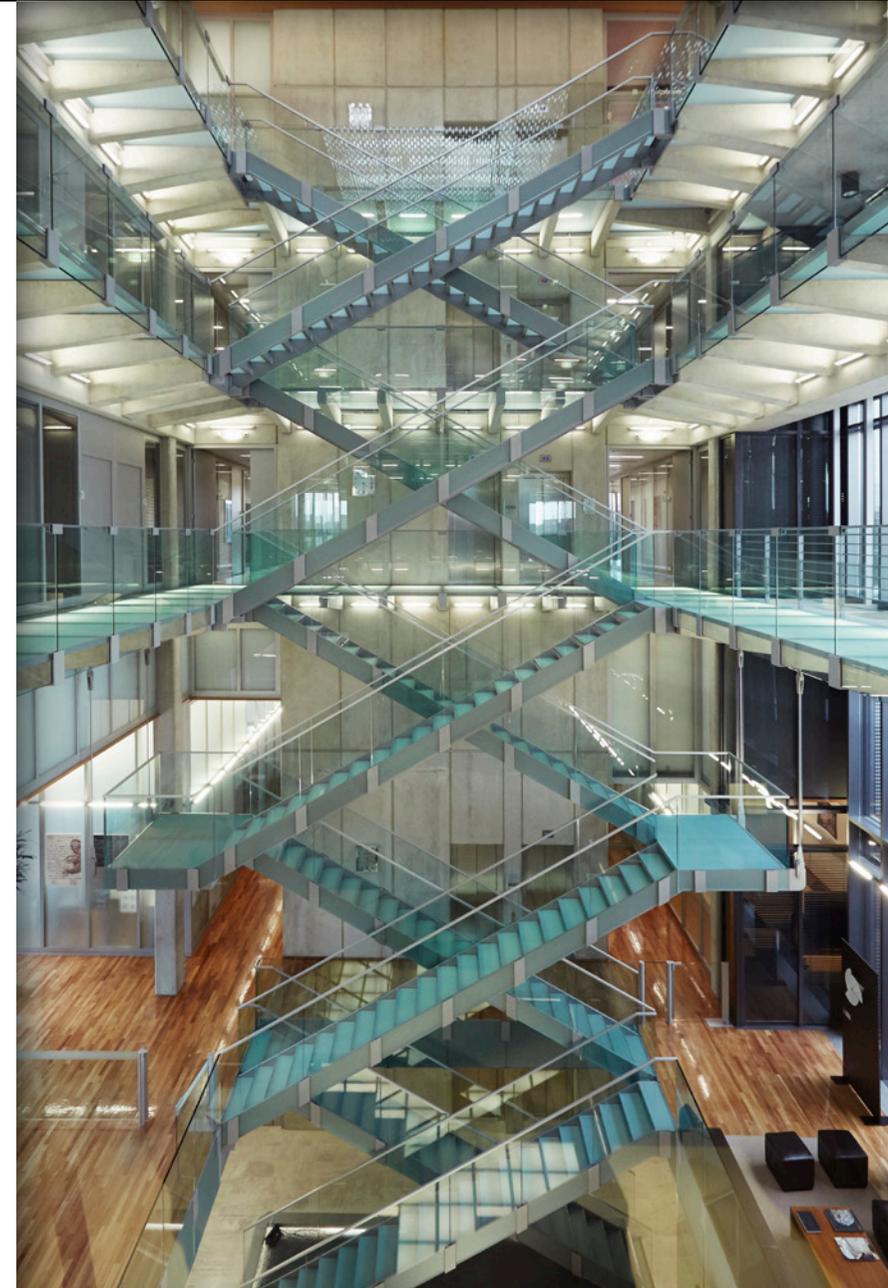
— 컬렉션

### 교류에 중점을 둔 매뉴팩처

제네바 근처의 플랑 레 와트 Plan-les-Ouates에 위치한 매뉴팩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본사이다. 매뉴팩처는 관리, 디자인, 연구개발, 헤리티지, 고객 서비스, 복원 및 교육 부서로 이루어져 있다. 제품 제작은 조정, 케이싱 작업, 컴플리케이션, 크로노그래프-투르비용,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메티에 다르 (인그레이빙, 에나멜링, 보석 세팅, 기요세), 캐비노티에, 검사 및 인증을 담당하는 각각의 공방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계 스위스인 건축가 베르나르 추미 Bernard Tschumi가 설계한 매뉴팩처는 2005년에 완공되었으며 2015년에 증축되었다. 2005년과 2015년은 메종 창립 250주년과 260주년에 해당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17,000평방미터 규모로 메탈, 콘크리트, 스틸, 나무 및 유리를 사용해 완성된 디자인 지향적의 최첨단 건축물은 오늘날의 환경친화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바쉐론 콘스탄틴이 소중히 간직해온 '조화의 추구'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 귀중한 자재들은 이 건축물의 본질인 지속가능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우아한 라인은 장인정신의 완벽한 전형을 드러낸다. 이 건축물이 창의성, 자연스러운 흐름, 개인 간의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설계된 것과도 같이, 커다란 외부 창을 통해 건물로 들어오는 자연광은 이곳 매뉴팩처에서 꾸준히 발전시켜온 진정성과 유쾌함을 담아내는 듯하다.

메종의 DNA 에 내제된 활기 넘치는 역동성 또한 시계 부품을 제작하는 발레 드 주Vallee de Joux의 매뉴팩처에 스며들어있다. 숙련된 장인들은 부품 가공에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인 수공 마감 기법까지 아우르며 입체감과 빛의 효과를 더해 부품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베벨 처리, 다듬기, 스무딩, 폴리싱 및 원형 그레인 처리에서 입체감과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빛을 발한다. 어린 딸을 작업 공간에 데려와 자신의 일과 열정을 전수하던 전문가의 자리에 이제는 딸이 어머니의 일을 이어받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원형 그레인 처리 전문가의 이야기처럼, 장인 정신을 향한 애정은 매뉴팩처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 탁월함의 세계

개요

시계 애호가들

매뉴팩처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컬렉션

###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모든 제작에 있어 바쉐론 콘스탄틴의 특별한 기술과 시그니처 디자인은 끊임없이 정확성을 추구하는 메종의 탁월한 전문성을 통해 완성된다. 1860년 시계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무브먼트 부품의 명칭인 말테 크로스를 브랜드 로고로 채택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 숙련된 기술과 매끄러운 공정 기법은 모두 사람의 손에 의해 유지되며, 매뉴팩처에서 세대를 이어 마스터 워치메이커에서 견습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선대의 기술을 영구히 보존한다. 장인이 지닌 전문성은 마치 릴레이의 바통처럼 이어진다. 그리하여 장인들이 보유한 기술성은 장인 서로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제작의 각 단계에서 시계 부품은 사용된 소재가 골드이든 스틸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칼리버의 중요한 기관이든 마이크로 스크류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세심하게 제작, 장식 및 검사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타협이나 실수의 여지는 없다. 대신 상당한 검손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매뉴팩처의 마스터 워치메이커 중 한 명은 다음과 같이 즐겨 말하곤 했다. "우리가 검손함을 잃는 순간, 시계가 힘의 균형이 놓여 있는 곳을 상기시켜준다." 차분하고 침착하며 최고 수준의 기준을 고수하는 워치메이커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고 그중에서도 더 대담한 이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새롭게 개척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언제나 새롭게 출시될 다음 모델이다. 날카롭게 깎은 도구, 정교한 컷, 폴리싱 처리된 앵글, 원형 마감……우리는 매끄럽고 눈부신 표면을 교대로 적용하며 빛의 효과를 활용해 모티프에 영롱한 광채를 불어넣는다."

탁월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메종의 탁월함은 사람의 손으로 전통과 혁신의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어가는 매뉴팩처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 특유의 품질 기준에 따라 오늘날의 제작 기법에 필요한 최첨단 기계를 제작한다. 맞춤형 시계 제작을 통해 최상의 정확도를 달성한다. 한 컬렉션에 포함되는 동일한 모델이라 해도 수작업이 더해져 더욱 특별해진다. 정확성과 개인 맞춤 제작이야말로 최고의 완벽한 조합이라 할 수 있다.



## 탁월함의 세계

개요

시계 애호가들

매뉴팩처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컬렉션

## 바쉐론 콘스탄틴 컬렉션, 260년 이상 이어져 온 탁월한 기술과 디자인

### 플래그십 컬렉션

- **패트리모니:** 세심하게 균형 잡힌 비율, 간결한 곡선, 순수한 라인 및 슬림한 케이스. 1950년대 제작된 바쉐론 콘스탄틴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미니멀한 디자인.
- **트래디셔널:** 장인 정신과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제네바 워치메이킹 기술에 대한 경의를 담은 컬렉션.
- **오버시즈:** 1996년에 출시되고 2016년에 재탄생된 오버시즈 컬렉션은 모던함, 시크함 & 스포티함, 실용성 & 편안한 스타일이 돋보이며 교체 가능한 브레이슬릿/스트랩 및 버클을 제공한다. 이 오토매틱 시계는 여행과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선보인다.
- **피프티식스:** 2018년 공개된 피프티식스는 캐주얼한 품격의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현대적인 삶과 어울리며 언제 어디서든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컬렉션이다. 1956년 모델의 특정 디자인 코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심플하거나 복잡한 무브먼트를 장착한 골드 또는 스틸 버전으로 출시된다.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오리지널 오픈워크 골드 로터는 메종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로 장식되어 있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탁월함의 세계

개요

— 시계 애호가들

— 매뉴팩처

— 손 끝에서 탄생하는 정교함

— 컬렉션

### 특산품

- **히스토리:** 매뉴팩처의 기술적, 미적 전문성을 기리기 위해 바세론 콘스탄틴의 전형적인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
- **메티에 다르:** 여러 세대를 걸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이어져 온 전통 장식 기법(에나멜링, 인그레이빙, 보석 세팅, 기요세)을 강조한 특별한 모델. 수년 동안 다양한 테마를 담아 제작되었다. 아에로스티어, 메카니크 아주레, 빌레 루미에르, 코페르니쿠스 친구…… 소재와 컬러의 다양한 연출로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냈다.
- **하모니:** 쿠션 형태를 재해석한 디자인에 고스란히 반영된 바세론 콘스탄틴의 탁월한 기술과 디자인. 1928년 출시된 크로노그래프를 연상시키는 곡선형 케이스 측면, 정사각형 베젤, 원형 크리스탈. 이 컬렉션은 혁신적인 오리지널 칼리버를 탑재하고 있다.
- **말테:** 인상적인 토노형 디자인으로 말테 크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컬렉션은 바세론 콘스탄틴이 타임피스 디자인에서 발휘하는 다양한 독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 **외호 크레아티브:**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한 컬렉션. 진귀하고 화려하며 대담한 매력이 돋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이 작품은 1920년대와 1930년대, 1970년대에 출시되었던 상징적인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 **케드릴:** 제네바에 위치한 메종의 역사적 발생지의 이름을 딴 이 컬렉션.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시계를 제작해온 18세기 마스터 캐비노티에에서 발전해온 탁월한 시계 제작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 **1972:** 색다른 비대칭 구조의 컬렉션은 주얼리 장식 또는 댄디한 스타일의 개성을 선보인다.
- **캐비노티에:** 기술적 정교함과 뛰어난 디자인의 위업을 과시하며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단 하나뿐인 모델을 선보이거나 주문 제작 방식의 맞춤형 시계를 제작한다. 바세론 콘스탄틴의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그리고 히스토리컬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또한, “캐비노티에”를 통해 까다로운 수집가들의 높은 안목을 만족시키는 진귀한 타임피스를 제작하며 메종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vacheronconstantin



**VACHERON CONSTANTIN**  
GENÈVE

